

## “15센트 더 내면 비키니차림 여성이 주유”



▲ 중국의 한 주유소가 비키니 차림의 여성이 주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유튜브(MBCNEWS) 캡처 편집

주유소 홍보 행사에 난데없이 비키니 차림의 여성들이 대거 등장해 이목이 집중됐다.

19일 'MBC'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차오저우에 소재한 대형 주유소는 지난 1일 노동절 연휴 행사를 개최하면서 1위안(약 15센트)을 더 지불하는 고객에게 비키니 차림의 20대 여성이 주유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논란이 됐다. 주유소 관계자는 “연휴를 시작하면서 장거리 여행을 위해서 주유하려는 차주들이 많았다.”면서 “한 번에 많은 손님들이 물리는 시기에 차주들의 지루함을 달래주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할 지역 상무국은 논란이 된 주유소의 관측행사가 도를 지나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광둥성 상무국은 즉시 담당자를 과전, 논란이 된 주유소를 조사한 결과 총 5명의 여성들이 당일 수당을 받는 형식으로 주유소에 고용됐던 것을 확인했다. 상무국 관계자는 “업체가 시도한 행사는 기획 취지가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여성의 신체 노출을 악용한 사례”라면서 “저속하고 반사회적이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상무국은 문제의 주유소 행사에 대해 즉각 중단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이 같은 여성의 신체 노출로 이목을 끄는 업체 행사가 이날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3월 중순에는 산시성 시안시의 대형 부동산 프랜차이즈 업체가 상의가 깊게 과인 옷차림의 여성들을 대거 고용해 관측행사를 벌인 것이 적발됐다. 행사 장면은 현장에 있었던 주민들에 의해 촬영, 온라인 상에 공개되면서 문제의 업체는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이 부동산 업체는 5월 17일 기준 모든 영리행위 및 홍보 행사 등에 대한 업무가 중지된 상태로 알려졌다.

## 실업수당 가로채고 SNS에 자랑한 허당 청년들

뉴욕시 브루클린의 10~20대 청년 8명이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총 200만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19 실업수당을 부정수급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렇게 얻은 돈을 현금 다발로 들고 사진을 촬영해 SNS에 올렸다 털미를 잡았다.

지난 18일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실업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해 거액을 가로챈 일당 가운데 6명이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나머지 2명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18~25세인 이들 일당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훔쳐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200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체포 당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실업수당 지급용 직불카드를 100장 넘게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들 중 몇몇은 이렇게 훔친 돈을 SNS에 자랑해 허술함을 드러냈다.

로버트 레이든 뉴욕주 노동위원장은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에 이같은 범죄는 시민들의 생명줄을 훔치는 것과 같은 비열한 짓”이라면서 “더이상 범죄자에 대한 관



▲ 실업수당을 부정 수급한 일당이 기소됐다. 사진= NY District Court (뉴욕데일리 재인용)

용은 없으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실업수당과 관련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누크 비즐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래퍼 폰트렐 안토니오 바인스 역시 도난 신분증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20만 달러 이상을 챙겼다가 체포됐다. 그도 역시 실업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해 부자가 됐다는 내용의 노래를 유튜브에 올렸다가 털미를 잡았다.

## 흡연 중 손소독제 썼다가 자동차 홀랑 태워

흡연 중 손소독제 사용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이날 오후, 메릴랜드주 로크빌의 한 대형마트 야외 주차장에서 불길기 치솟았다. 차량 운전석에서 시작된 불길은 빠르게 차량 전체를 집어삼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불길을 잡았지만 사고 차량은 전소된 뒤였다. 몽고메리카운티소방당국은 “이번 사고로 2000년식 도요 타 캡리 한 대가 전소, 2,000달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근 차량 등 부수적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차안에 있던 차주는 목격자들이 신고하는 동안 스스로 차량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손과 허벅지 안쪽에 1~2도 화상을 입었다.



▲ 흡연 중 손소독제를 사용하다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유튜브(CBS 17) 캡처

이번 화재는 흡연 중 손소독제 사용이 그 원인이었다. 사고 차량주는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손소독제를 사용했는데, 담뱃재 불씨가 소독제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에탄올 함량이 높은 손소독제가 인화성 물질과 닿으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밀폐된 차 안은 더욱 위험하다.”면서 “불 근처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손소독제 성분은 60~70%가 고농도 에탄올이다. 농도가 높을수록 휘발성과 가연성이 강해 화재 위험이 높다. 소독제로 붙은 불은 쉽게 꺼지지도 않는다. 텍사스의 한 여성은 손소독제를 듬뿍 바른 손으로 촛불을 켜다가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기도 했다. 이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탄올이 마르도록 30초 이상 충분히 말려야 한다.

#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 (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0030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